

유훈관찰의 기상나래치는 영광의 대지

서해곡창안악군을돌아보기

어느것이 놀라운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가없이 넓은 절
야, 대지를 감싸 안은 것처럼 보
이는 지평선 저 멀리 높낮은 산들...

충주며 설에 이는 떠마다, 대마다
무겁게 이삭이 태린 강광이비다...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남먼저 끌
내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 벌써 마
을을 끌어당기면 안악군은 구수한 날
암갈피로 우리를 맞이하였다.

한낮의 떠락벌레는 비단을 땅땅에

풀게 하고 있었다.

온 한해 마음을 버거울리는 계절에

없고 세속으로 가을한 떠단을 아름답게

안아보는 심정으로 정성들여 논벼비

배반율과 하고 강생이들이 그 어떤

큰불피도 받지 않도록 밭고랑을 쪽

쪽은 실증군들...

목식을 영글게 하는 자연의 쪽양보

다 암약한 인민들의 심장을 더 뜨겁

게 탈구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발목이 시도록 걸고싶은 영광의 대
지를 들어보며 우리는 이에 대한 대
답, 드넓은 범을 이루는 한줄기 한줄기
이랑과 춘두령, 하나하나의 표전에 열

마나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깃들어있

는지 삶에 경건한 마음으로 새기였다.

바람 한결 없는 푸른들은 옷자락에
비포니 스치는 소리에서 둘릴 정도로
고즈넉하였다.

하지만 영광의 땅은 분화구를 찾는

임장마당 지설길이 끝이었다.

지난 수십년간 찰로써 위대한 당을
발달이 사람으로 운동전통을 가
지고 있는 떠서의 고장.

당 7차대회 대회장을 펴놓은 심장
에 조아하고 일어서 최후승리를 향하
여 달리는 오늘처럼 흥울격전의 합성
드높이 운기 늘사일에 충매진 한적

은 일씨가 없었다.

위대한 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하시였다.

《황남도에서는 첫째도 뛰어난

농사를 잘 지어 광복을 많이 생산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동강의 최선방위처를 치지하고 영농
공장별전장을 파악적으로 지휘하는 일
군들, 서로 돋고 일어서 직업연발,
분조별, 토진별 경쟁 열풍을 일으키는
임동농장들, 농사판리 꽂풀은 농
장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둘러
주어 모두가 불굴의 정신력으로 알록

생산에 헌신나서게 하고있는 일군들...

안악군 하면 누구나 제일먼저 오국
리를 끊는다.

온 나라에 배우산금대비단을 복종하여
일구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 찾으시였
던 영광의 땅도 오국리가 아니면가.

그날은 7년전 1월이었다.

오국립동농장이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가야 한다고 고무해주시면서

몸과 농장에서 걸어고이는 문제들을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 간년 자식의 힘을 찾는 심정으로

자주 농장을 찾으시며 전성자체 운반대에

도 세워주시고 문화주체건설에 필요

한 차례의 출근에 출근마다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

세집들이 한 농정원의 집을 찾으

시고 이 집은 풍요로운 대로 당시대에

는 오국리 농민들에게 주는 선물이

라고 끌어 기뻐하신 우리 수령님.

봄소 가마와 꽃단지 푸성도 열어

보시고 수도를 펼쳐놓으니 우아하나

는 행복의 메아리, 특색 있게 일대선

문화후생시설들, 공공건물들...

한국의 그림과 같은 선경을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전

실을 위한 투쟁은 우리 농촌을 현

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면시키기 위한

승하고 영광스러운 힘을 라고

하시며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만년대계

를 꿈꾸며 열려주셨다.

그 희한 절은 나날을 끝에 끝으로

추억을 없으시고 오국립동농장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원정

을 많이 끌어안은 농장이라고, 수령님

의 은혜로 지나날 밤과 빙궁중이

지나지 않던 오국리가 소문난 후황지대

도 있었다.

이날 페일리와 월정리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눈밭에 거름을 제

대로 내는 문제를 강조하시었다. 큰길

을 깊어놓았던 농민들이

이어받아 농사를 짚어주어야 한다고

포전을 정리하여 기계로 농사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진천도 주위에 떠는 날씨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동안 비를

세우면서 다시 빠져온 날에

도달해야 할 일과 생산 목표도 하

여 우리의 가슴은 미망 놓았다.

진천도 주위에 떠는 날씨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과 생산 목표

도달해야 할 일과 생산 목표도 하

여 우리의 가슴은 미망 놓았다.

그때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조선인민

의 마음속에 수령경사운위의

화신으로 영생하고 계신다.

내사의 가장 큰 업적은 항일

의 격정마다에서 김일성장군

을 통유하게 이룩하신 위인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하기에 국제 사회계는 우리

인민과 젊고 젊은 마음속에

영행하시는 걸 험한 혁명가

를 우리 대침없는 청중의 목

소리를 떠치고 있다.

조선인민주주의 바위위위원회 제

1부위원장과 봉사를 김정숙유지원

원장은 김정숙녀사를 조선인민

은 빨개산의 내장군으로, 혁명

의 어미이로 칭송하고 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내사의 물질은 생애에는

누구나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다

고 친양하였다.

방글라데시 유수한 관공화국의

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에게

는 농민들이

기쁘게 친해졌다.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여기 힘으로 모내기를 끌어안은 절

도입문제, 지역을 높이기 위하여 유
기질비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예
대한 문제, 긴장한 로역 문제를 풀기
위하여 농기계들의 터보를 높일 예
대한 문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풀

당정책결사관철투쟁에서 창조된 흥륭한 본보기

제령군삼지강협동농장의 경험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뛰쳐들어나 산도 끊기고 바다도 뛰어는 기적을 끌어 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백두산 3대장군의 평도업적에 드리고 깃들어 있는 새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총령의 200일전투의 기세 한 불길이 터뜨르는 가운데 이성과 오늘의 대에게 떠나는 적동적인 만파

최고의 목표를

최상의 수준에서

정해졌다.

사실 전문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는 단위도 아닌 농장에서 어려가기 힘든 기계들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농기계창단체 목표를 세울 때 판매위험을 침행하는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생사가 바로 여기에 비끼어온다.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70% 수준에 올려세우는데

당에 헌정을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심장속에 끊어버린 것은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눈같이

써내치기, 뜯기, 노내기, 농기계

제작 않은 영농공정을 기계로

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농장일군들은 당의 요구에 맞게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나가며 농기계를

제작해나가고 있다.

농기계를 제작하는 일은

북침전쟁도발자, 대결광신자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개꿈

최근 남조선에서 우리를 학탄두록방시 힘과 관련하여 박근혜가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른이 나돌고 있다. 괴뢰당국의 『대북정책』이 『북정철교제』에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최근 박근혜당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학탄두록방시 힘과 미친듯이 걸고 들면서 우리를 어찌 볼 흥미로운 속심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괴뢰역도는 그 무슨 『북정권』을 광장내겠다는 각오로 뛰어나온다. 우리는 국악무도한 폭언을 함부로 헤치면서 침해없이 대결평기를 부리고 있다. 청와대 악의 치마비바람에 어릴 때 가 키지 못한 부모에게 풀을 『북수부초회』, 『평양을 지도상에 서 사라져서 만들겠다』, 『느니 하는 부분별 악당들을 마구 쓸어내며 저마다 흰목을 품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학탄두록방시 힘과 화들짝 놀난 박근혜역적파당이 감히 『북정철교제』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갈수록 배경인 『북핵폐기』와 『북방정책』을 정한 것도 이미 복도로 사실이다. 괴뢰당은 청력의 자리에 끌고온 것은 첫 날부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약화하게 방해하면서 외세와 악화하여 종족내경에 얻을 수 있다. 이들이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회의 기회를 흔들어 『북핵폐기』와 『북방정책』을 추구하여 반봉화국학소동과 『인권』포막, 제재 강화 등에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절망의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복침합동군사연습을 광범위로 벌인 것은 바로 우리의 최고운암과 사회주의의 도를 헤치고 『북핵폐기』의 개념을 험난히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괴뢰역적파당의 발악적인 망동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민간과 자상력이 날로 더워 강화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눈부신 학제적 혁신이 일어나는 속에 우리 풍화국은 미국의 혁재권에 및침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동방의 해강국으로 도모하고 남류는 부나비들의 당동이 아닐수 없다. 아직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떠밀고 대세의 주지도 분명함을 도모하는 천하백치들의 히스테리적평가는 내외의 조소만을 자아낸다.

이번에 남조선언론은 박근혜가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상 괴뢰역도는 집권초기부터 우리를 헤치는 방법으로 『북핵폐기』와 『북방정책』을 실현하고자 피눈이 되어 남겨왔다. 박근혜는 대로 『대북정책』의 실체가 더 없이 명백해졌다. 지금에 와서까지 어리석기 짜이 없는 『북정권교체』를 추구하여 『북핵폐기』와 『북방정책』을 계속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핵의 성에 혼미 배신한 괴뢰역도는 『물광』이니, 『각오』니 하면서 일에 계기풀을 풀고 좋게들을 물어내고 있다. 괴뢰역도는 유니 편수는 없는 법이다. 그만한 헌장을 보았으면 부질없는 놀음을 작자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명한 차사이다. 박근혜에게 당은 서둘러 아무리 발악하고 몸부림쳐도 결과는 달리 될 수 없으며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을 특별히 알아야 한다.

괴뢰역도는 스스로는 스트로운 국방부제로 살피고 있다. 당시 『북핵폐기』를 『물광』이니, 『각오』니 하는 미친 듯이 일약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북정권교체』라는 허황한 망상을 사로잡힌 괴뢰들이 『북정권』을 광장내겠다는 각오로 『북수부초회』와 함께 괴롭을 『북방정책』을 어떻 게 하니 실현하려고 미친 듯이 일약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북정권교체』라는 허황한 망상을 사로잡힌 괴뢰들이 『북정권』을 광장내겠다는 각오로 『북수부초회』와 함께 괴롭을 『북방정책』을 어떻 게 하니 실현하려고 미친 듯이 일약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학탄두록방시 힘과 화들짝 놀난 박근혜역적파당이 감히 『북정철교제』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갈수록 배경인 『북핵폐기』와 『북방정책』을 추구하여 반봉화국학소동과 『인권』포막, 제재 강화 등에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절망의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복침합동군사연습을 광범위로 벌인 것은 바로 우리의 최고운암과 사회주의의 도를 헤치고 『북핵폐기』의 개념을 험난히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괴뢰역적파당의 발악적인 망동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민간과 자상력이 날로 더워 강화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눈부신 학제적 혁신이 일어나는 속에 우리 풍화국은 미국의 혁재권에 및침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동방의 해강국으로 도모하고 남류는 부나비들의 당동이 아닐수 없다. 아직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떠밀고 대세의 주지도 분명함을 도모하는 천하백치들의 히스테리적평가는 내외의 조소만을 자아낸다.

이번에 남조선언론은 박근혜가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상 괴뢰역도는 집권초기부터 우리를 헤치는 방법으로 『북핵폐기』와 『북방정책』을 실현하고자 피눈이 되어 남겨왔다. 박근혜는 대로 『대북정책』의 실체가 더 없이 명백해졌다. 지금에 와서까지 어리석기 짜이 없는 『북정권교체』를 추구하여 『북핵폐기』와 『북방정책』을 계속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핵의 성에 혼미 배신한 괴뢰역도는 『물광』이니, 『각오』니 하면서 일에 계기풀을 풀고 좋게들을 물어내고 있다. 괴뢰역도는 유니 편수는 없는 법이다.

그만한 헌장을 보았으면 부질없는 놀음을 작자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명한 차사이다. 박근혜에게 당은 서둘러 아무리 발악하고 몸부림쳐도 결과는 달리 될 수 없으며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을 특별히 알아야 한다.

괴뢰역도는 스스로는 스트로운 국방부제로 살피고 있다. 당시 『북핵폐기』를 『물광』이니, 『각오』니 하는 미친 듯이 일약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북정권교체』라는 허황한 망상을 사로잡힌 괴뢰들이 『북정권』을 광장내겠다는 각오로 『북수부초회』와 함께 괴롭을 『북방정책』을 어떻 게 하니 실현하려고 미친 듯이 일약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학탄두록방시 힘과 화들짝 놀난 박근혜역적파당이 감히 『북정철교제』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갈수록 배경인 『북핵폐기』와 『북방정책』을 추구하여 반봉화국학소동과 『인권』포막, 제재 강화 등에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절망의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복침합동군사연습을 광범위로 벌인 것은 바로 우리의 최고운암과 사회주의의 도를 헤치고 『북핵폐기』의 개념을 험난히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괴뢰역적파당의 발악적인 망동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민간과 자상력이 날로 더워 강화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눈부신 학제적 혁신이 일어나는 속에 우리 풍화국은 미국의 혁재권에 및침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동방의 해강국으로 도모하고 남류는 부나비들의 당동이 아닐수 없다. 아직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떠밀고 대세의 주지도 분명함을 도모하는 천하백치들의 히스테리적평가는 내외의 조소만을 자아낸다.

이번에 남조선언론은 박근혜가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지도 못하고 도리어 남을 헤치겠다고 지랄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신성한 죄고준엄에 도전해나서는 적자무리들에게는 소속을 빼앗아도 된다. 우리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를 놓고 싶어 있다. 북근혜역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핵의 성에 혼미 배신한 괴뢰역도는 『물광』이니, 『각오』니 하면서 일에 계기풀을 풀고 좋게들을 물어내고 있다. 괴뢰역도는 유니 편수는 없는 법이다.

그만한 헌장을 보았으면 부질없는 놀음을 작자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명한 차사이다. 박근혜에게 당은 서둘러 아무리 발악하고 몸부림쳐도 결과는 달리 될 수 없으며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을 특별히 알아야 한다.

괴뢰역도는 스스로는 스트로운 국방부제로 살피고 있다. 당시 『북핵폐기』를 『물광』이니, 『각오』니 하는 미친 듯이 일약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북정권교체』라는 허황한 망상을 사로잡힌 괴뢰들이 『북정권』을 광장내겠다는 각오로 『북수부초회』와 함께 괴롭을 『북방정책』을 어떻 게 하니 실현하려고 미친 듯이 일약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학탄두록방시 힘과 화들짝 놀난 박근혜역적파당이 감히 『북정철교제』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갈수록 배경인 『북핵폐기』와 『북방정책』을 추구하여 반봉화국학소동과 『인권』포막, 제재 강화 등에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절망의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복침합동군사연습을 광범위로 벌인 것은 바로 우리의 최고운암과 사회주의의 도를 헤치고 『북핵폐기』의 개념을 험난히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괴뢰역적파당의 발악적인 망동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민간과 자상력이 날로 더워 강화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눈부신 학제적 혁신이 일어나는 속에 우리 풍화국은 미국의 혁재권에 및침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동방의 해강국으로 도모하고 남류는 부나비들의 당동이 아닐수 없다. 아직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떠밀고 대세의 주지도 분명함을 도모하는 천하백치들의 히스테리적평가는 내외의 조소만을 자아낸다.

이번에 남조선언론은 박근혜가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남로 강화되는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을 예상한 괴뢰역적파당이 『정교파』와 거래를 맺고 구입한 잠수함은 유통 결합 투성이어서 저지하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각파 장교들은 거래 과정에 외국회사로부터 수많은 페리를 받고 지어 성립되거나 제공에 불린 것과 중요하게 판련된다. 하면서 『군부의 파트는 치명적수준』, 『사법들보다 장성들이 더 큰 문제라고』 일치하게 정하고 있다.

보다 많이 지금 괴뢰들은 풍세로 부정부패의 수령속에 빠져 하우저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족대결에 미친 박근혜역도는 이런 역할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풍세로 부정부패행위로써 비난여론에서 비난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p